



곽병찬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졸업식

3년 과정을 이수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는 등의 말씀 끝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강조했다.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시냇물이 강물로 모여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듯,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어 단상에 오른 재단 이사장의 말씀도 비슷했다. 첫째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할 것이며, 둘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딸의 중학교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3년 내내 까불거렸을 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시종 숙연했다. 1시간 20분이나 지났는데도, 몸을 비틀거나 장난치는 아이는 없었다. 중학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에 들어선다는 것, 그만큼 자신들이 성장했다는 것, 성장한 만큼 자신의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사실 등의 무게가 어린 그들의 가슴을 누르는 듯했다.

그렇다. 졸업은 선생님들 말씀처럼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끝나면 대학 생활이 시작할 뿐이다. 대학 과정으로 끝일까. 아니다. 스스로 책임과 권리를 갖고 그동안 사회적 보살핌에 보답을 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더 가파르고 험난한 시작이다. 직장 생활에서도 단계별로 끝

과 시작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러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과정마저 끝내면 그걸로 이제 진정 끝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가족에 의탁하는 신세가 되더라도, 누구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고자 계획을 세운다.

이런 시작과 끝,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곳 어디에나 있는 것이 인류학에서 말하는 통과의례다. 졸업식 입학식 따위는 통과의례의 한 전형이다. 통과의례는 파충류나 곤충이 반드시 겪는 껍질벗기나 마찬가지로. 성장을 위해, 혹은 성장을 인증받기 위해 치르는 의식인 것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통과의례는 통과하는 이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는 방향으로, 엄숙하면서도 활달하게 진행됐다. 전통적인 성년식이나 결혼식 따위가 그 한 실례가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을 잔뜩 위축시키고, 겁주고, 차별 짓고 해서는 안된다. 설사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를 극복하도록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통과의례인 졸업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안타깝게도 몇몇 잘 나가는 아이들만의 졸업식이 될 뿐, 나머지 대다수 아이들에게는 고통의 자리가 되는 듯하다. 성숙아와 미숙아를 가르는 병아리 감별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단상을 오가며 아름답고 보장받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과, 단하에 주질러 앉아 3년간의 실패와 불안스런 미래를 곱씹어야 하는 아이들로 확연히 구분해

버리는 것이다.

졸업생 숫자는 4개반 176명이었다. 적은 숫자였다. 이날 졸업식에서 가장 오래 시간을 잡아먹은 순서는 시상식이었다. 학생 숫자는 작아도 있을 수 있는 상은 모두 있었다. 학교 창립자 상부터 광화문우체국장상까지 18종류의 상이 있었다. 특별히 상 받는 기분이 나지 않는 3년 개근, 3년 정근, 1년 개근상을 빼면, 수상하는 총인원은 60명이나 됐다. 숫자로는 전체의 1/30이나 되니 좋은 일이다. 그 작은 상장과 선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 상이야 다다익선이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이름이 불려진 아이들은 25명이었다. 이 가운데 단상에 올라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상을 받은 아이는 15명에 불과했다. 개근 정근상 대표로 받은 아이까지 합치면 18명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아이는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로 시작되는 상을 모두 5개나 받았다. 그때마다 이 아이는 단상에 올라 갔다. 게다가 그 아이는 졸업증서를 받을 때도 단상에 올라 갔고, 졸업생 답사도 맡아서 했다. 아이는 모두 7번이나 단상에 올랐다. 이렇게 겹치기로 상을 받거나, 대표로 단상에 오른 아이들이 많은 탓이었다. 나머지 150명의 아이들은 단상 단하에서 이뤄지는 일이나 열심이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날 졸업식은 모든 졸업생을 위한 졸업식이 아니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을 주는 그런 통과 의례도 아니었다. 살벌한 경쟁구도를 억박지르듯이 주입하고, 거기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어떻게 구별되고 차별 대우를 받는지 알려주는 행사 같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3년동안 모두 열심히 노력했다. 개근 상 정근상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3년 개근상을 받은 아이가 53명이나 됐다. 3년 정근상은 84명이고, 1년 정근상은 4명이었다. 모두 141명이다. 1년 개근하기도 힘든데, 3년간 개근한 아이가 전체 학생의 30%나 됐다. 그리고 3년 정근상 까지 합치면 전체 학생의 70%에 이른다. 아이

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이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아이들은 또래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 거의 빠짐없이 출석한 것이다. 그런데도 졸업식은 아이들을 소수의 우수한 학생과 다수의 별 볼 일 없는 학생으로 나눠버렸다. 그리고 앞의 아이들에게겐 축복을, 뒤의 아이들에게겐 위축감을 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졸업식에 온 걸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른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나나 다를까. 며칠 뒤 조카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그곳에 갔다온 딸의 이야기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드러내 줬다. 졸업식장엔 졸업생이 절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15만 600여명의 학생 가운데 300여명만 참석했으니, 졸업식장은 얼마나 썰렁했을까. 시상식이 무려 1시간이나 계속됐는데, 거기서도 호명된 아이들만 계속 호명됐다고 한다. 대개의 아이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도 못했을 터인데, 무엇하러 '그들의 빛나는 졸업식'에 참석하려 할까. "나라도 들러리 서지 않을 꺼야." 딸 아이의 말이다.

재학생 송사에 답하기 위해서, 6번 단상에 올랐던 아이가 다시 아이들 앞에 섰다. 그렇고 그런 답사를 하는 동안, 출창 의자에 앉아 단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켜만 보고있던 아이들 틈에서 흐느낌이 들렸다. 어떤 아이는 열심이 눈을 훔치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수그린 채 어깨를 들먹이기까지 했다.

내내 속이 상했을 터인데도 아이들은 헤어짐에 대해 그만큼 순수하게 반응했다. 어른들이 우등 열등으로 나뉘지만, 그들에게 오로지 귀한 친구들일 뿐이었고, 떠나기 싫은 교실이고 선생님이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예쁜 아이들의 마음을 변치않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년뒤 또 다른 졸업식에서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냉소하지 않고, 여전히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방법 말이다. PPFK